

오승환 “ML 타자들과 후회 없는 대결 펼치고 싶어”



오승환(오른쪽)이 12일(한국시간)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 매서니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서니 감독은 명 포수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의 대표적 지장으로 꼽힌다. 사진제공 |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ML 진출은 야구 시작할 때부터 꿈은 꿈 명문구단 세인트루이스 일원이 돼 영광”

“메이저리그 타자들과 후회 없는 대결을 펼치고 싶습니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이 메이저리그(ML) 진출의 꿈을 이뤘다. 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ML 명문구단인 세인트루이스의 일원이 돼 영광이다. ML 타자들과 후회 없는 대결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어느 선수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오승환에게도 ML은 꿈의 무대였다. 더 큰 무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최고의 타자들과 맞붙는 날을 꿈꿔왔다. 그러나 KBO리그에서 빅리그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어린 시절부터 빠른 공을 던지며 ML의 러브콜을 받던 유망주였지

만, 팔꿈치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단국대 1학년 때는 팔꿈치인대접합수술까지 받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묵묵히 훈련하며 130km까지 떨어졌던 구속을 140km대 후반까지 끌어올렸고, 2005년 신인드래프트 2차 1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오승환은 데뷔와 동시에 KBO리그를 대표하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최고가 되자 일본으로 눈길을 돌렸다. 막상 가보니 일본무대도 그에게는 좁았다. 2013시즌 종료 후 일본프로야구 한신에 입단해 지난해까지 두 시즌 연속 센트럴리그 구원왕에 올랐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최정상에 올랐지만,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선택했다.

오승환은 “ML 진출은 야구를 시작할 때부터 꿈은 꿈이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환경, 더 큰 무대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지

만 어렵게 왔으니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승환이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빠르고 위력적인 직구 덕분이다. 물론 ML에선 시속 150km가 평범한 구속일 수 있지만, 오승환의 직구는 회전수가 많아 타자들이 치기 까다롭다. 독특한 투구폼 때문에 타격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다.

오승환은 “ML 투수들은 투심(패스트볼)을 많이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강점은 포심패스트볼”이라며 “환경은 다르지만 야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인트루이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11번이나 한 명문구단이고, 지난해 총 관중수가 ML 팀들 가운데 두 번째(350만명)로 많은 정도로 야구 열기가 뜨겁다고 들었다. 앞으로 (승원해주는) 카디널스 팬들과 한국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오승환은 실익…세인트루이스는 안전장치

■ 1+1년 총액 최대 1100만달러 의미

예상 외로 계약조건까지 좋았다. 단기계약에 옵션 비율도 높지만, 오승환(34)으로선 ‘실적으로 입증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오승환(스포츠동아 1월 11일자 단독보도)이 1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공식 입단식을 치렀다. 속전속결이었다. 계약기간은 보장기간 1년에 1년 옵션인 ‘1+1년’으로, 그 외 세부조건은 구단과 선수 양측의 동의 아래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의 1년 계약이다. 메이저리그 보장 조건이 있는 오승환이 올 시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계약은 그대로 끝난다. 25인 로스터에 포함되기에 시즌 중 방출 가능성도 있다. 구단 측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오승환에게도 실익은 충분하다. 에이전트 측에서 보장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옵션을 모두 달성할 경우 2년간 최대 1100만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연평균 5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은 ‘특급 선수’들이나 가능하다. 실력을 보여준다면 ‘돈’도 따라오고, 향후 메이저리그에서의 ‘미래’도 보장된다.

일단 옵션을 포함해 첫 해 최대 500만달러, 이듬해 최대 600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보장 액수가 1100만달러 중 얼마를 차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라는 이점이 있어 기회를 부여받는 데 문제는 없다.

오승환으로선 최대한의 조건을 얻어냈다. 세인트루이스도 계약기간과 옵션이라는 안전장치를 집어넣으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검증된 소망수로 불펜 자원을 늘렸다. 이미 강정호(피츠버그)와 박병호(미네소타)의 포스트링에서 밀렸던 아픔이 있어 한층 상향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을 곧바로 40인 로스터에 올렸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실력으로 살아남는 일만 남았다.

이명호 기자 nirvana@donga.com

박찬호, 한국인 첫 빅리거…류현진·강정호, KBO서 ML직행 ‘제2 신화’

타임트랙

이원국 1960년대 미국 트리플A까지 경험 박찬호 다저스 입단후 유망주 미국행 붐물 박병호 김현수 등 KBO출신 빅리거 활약

1968년, 아직 한국에 프로야구도 없던 시절에 투수 한명이 원대한 꿈을 품고 태평양을 건넜다. 한국야구 최초로 꿈의 무대로 불리는 메이저리그 도전이 시작됐다. 수많은 야구팬들은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주인공을 박찬호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역사는 48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 도전에 성공한 첫 사례다.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했고,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장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이후 박찬호가 다저스의 주축 선발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유망주들이 미국으로 날아갔다. 박찬호를 필두로 김병현, 서재응, 김선우, 최희섭 등이 2000년대 초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서서히 코리안 빅리거의 수는 줄었고, 2013년 류현진이 다저스에 입단하기 전에는 추신수(텍사스)만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명맥을 이었다.

류현진에 이어 강정호(피츠버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흐름은 고교나 대학 유망주의 미국 도전이 아니라, KBO리그 스타의 빅리그 직행 또는 일본 경유가 대체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는 무려 6명의 한국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대호까지 가세하면 7명에 이른다.

●전설적인 강속구 투수 이원국

전설적인 강속구 투수로 꼽히는 야구원로 이원국은 1966년 중앙고 3학년 때 일본 도쿄 오리온스(현 지바롯데 마린스)에 스카우트될 정도로 크게 주목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선수 보유제한 규정으로 입단에 실패하자, 더 큰 무대인 미국을 선택했다. 프로리그도 없던 한국야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했던 시절, 이원국은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계속 빅리거의 꿈을 키워 트리플A까지 올라갔다. 메이저리그 데뷔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후 텍사스칸



박찬호

그에서 150승을 거두며 인상적인 족적을 남겼다. 이재우 전 OB 감독도 1972년 오를랜드에 입단해 트리플A까지 진입했다. 박철순은 1980년 밀워키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계약금 1만달러를 받고 입단해 더블A까지 올랐지만, 1982년 한국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이적료를 지불한 OB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다.

●‘박찬호 키즈’, 빅리그의 문을 활짝 열다!

박찬호의 성공은 한국야구의 유망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았다. KBO 집계 결과, 1994년부터 지난해 강정호까지 총 53명이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했다. 이 중 김병현(KIA)이 애리조나의 마주리투수로 활약했

고, 서재응(KIA)은 뉴욕 메츠가 기대하는 최고의 유망주 투수였다. 최희섭은 시카고 컵스에서 뇌진탕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현역 500홈런 타자인 엘버트 푸홀스(LA 에인절스)를 능가하는 대형 신인이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맹활약, 그리고 유망주들의 급격한 유출로 1990년대 후반 KBO리그의 인기는 급속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2009년에는 무려 9명의 고교생이 미국 팀과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강정호까지 메이저리그 데뷔는 13명만이 이뤘다. 13명 중에서 이상훈, 구대성, 류현진, 임창용, 강정호 등은 KBO리그 출신이다. 이제 새롭게 김현수(볼티모어), 박병호(미네소타), 오승환(세인트루이스) 등이 이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KBO리그에서 성장한 뒤 메이저리그의 문을 노크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인 길임이 입증됐다.

●코리안 빅리거 제2의 전성시대

2015년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에까지 오른 강정호의 성공은 지난해 12월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3·4번째 선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박병호는 이승엽(삼성)도 이루지 못한 KBO리그 홈런왕의 메이저리그 입성을 달성했다. 김현수는 포스팅(비공개입찰)이 아닌 프리에이전트(FA)로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한 최초의 타자가 됐다. 박병호는 1285만달러(약 149억 원)의 이적료(포스팅 비용)를 친정팀 넥센에 안겼고, 김현수는 볼티모어와 2년 700만달러(약 82억 6000만원)라는 매우 유리한 계약을 했다.

12일(한국시간)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 최대 1100만달러(약 133억 원)에 도장을 찍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강팀이자, 인기구단인 세인트루이스는 볼펜투수로 가는 파격적인 금액에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로 활약한 오승환을 영입했다.

터트대감이자, 코리안 메이저리거 중 유일하게 KBO리그 출신이 아닌 추신수를 비롯해 류현진, 강정호, 박병호, 김현수, 그리고 오승환까지 6명이 포진하며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가대표 4번타자 이대호도 약속된 50억원의 거액을 뒤로하고 꿈을 위해 메이저리그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현역 메이저리거 분포도



오승환, 강정호의 피츠버그와 19번 라이벌매치

오승환(34)이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하면서 내셔널리그(NL) 중부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강정호의 피츠버그가 같은 NL 중부지구에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메이저리그 스케줄에 따르면 양 팀은 무려 19차례나 만난다.

특히 양 팀은 최근 강한 전력을 구축하면서 더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세인트루이스는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00승(62패)을 달성하며 전체 승률 1위(0.617)를 기록했다. 그런데 피츠버그도 98승(64패)을 올려 세인트루이스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승리를 올렸다. 올해도 지구 우승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페넌트레이스 일정에 따르면 양 팀은 개막전부터 격돌한다. 4월 4~7일(한국시간) 피츠버그의 홈구장 PNC파크에서 3연전(5일은 휴식일)을 치른다. 강정호가 수술한 무릎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작부터 강정호와 오승환이 대결할 수도 있다. 그리고 10월 1~3일 세인트루이스의 홈구장 부시스타디

움에서 페넌트레이스 최종 3연전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는 같은 리그의 같은 지구 팀끼리 많이 만날 뿐 아니라 처음과 끝을 장식하도록 스케줄을 짜고 있다. 시즌 초반 분위기를 띄우고, 시즌 마지막 맞대결로 순위싸움을 하라는 의미다.

한편 오승환은 5월 14~16일 NL 서부지구인 LA 다저스와 원정 3연전을 펼친다. 이때 류현진과 격돌할지 궁금하다. 선발과 볼펜으로 보지 이 다르지만 팀 승리를 위해 경기 중·후반에 나란히 마운드에 설 수도 있다. 7월 23~25일에는 양 팀이 부시스타디움에서 다시 만난다. 오승환은 6월 18~20일에는 아메리칸리그(AL) 서부지구인 추신수의 텍사스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스케줄을 소화한다.

오승환에 앞서 박병호가 미네소타(AL 중부지구), 김현수가 볼티모어(AL 중부지구)에 입단하면서 현재 6명의 한국인 선수가 빅리그에 자리를 잡았다. 아쉽게도 코리안 빅리거들의 맞대결을 감상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재호 기자 keystone@donga.com